

한·일 근현대문학에 나타난 생활사적 의미에서 「전당포(典當舖)」가 미친 영향*

신윤주**
shin0613@de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현진건과 염상섭의 작품에 나타난 전당포의 역할 |
| 2. 선행연구 | 4.1 현진건의 『빈처』의 K에게 금전적 갈등 |
| 3. 나쓰메 소세키와 우노 코지의 작품에 나타난 전당포의 역할 | 4.2 염상섭의 『숙박기』의 변창길과 금전적 갈등 |
| 3.1 나쓰메 소세키의 『미치쿠사(道草)』의 겐조(健三)에게 금전적 갈등 | 5. 마치며 |
| 3.2 우노 코지의 『헛간 속(蔵の中)』의 야마지(山路)에게 금전적 갈등 | |

主題語: 전당포(Pawnbroker's Shop), 돈(money), 자본주의(capitalism), 생활사(life history), 감정 변화(emotional change)

1. 들어가며

「우리나라 최초의 전당포」는 고려 공민왕 때인 1365년에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전당

* 이 논문(저서)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5A8023668).

** 동의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1) 이에 대해 서길수(1987)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따로 대부업이 없고 부자를 찾아가서 빌리는 형태의 사금융의 형태였다. 1894년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인이 한국에 들어와 전당포 형태의 사채업을 시작하였다. 이후에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이를 모방하여 조합의 형태로 전당포를 설립하였다. 구한말시대와 일제 강점기에는 일반 서민이 신용으로 금전을 빌리기가 대단히 힘들었다. 그것은 당시의 개인이 금융기관의 대부조건을 만족시키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전당포는 특히 도시의 서민들 사이에서 필요할 때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높은 이율은 전당포를 고리대금의 대명사로 여겨지게 만들었으며 강도들의 주요 범죄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자본이 조선을 침탈하는 창구 구실을 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의 전당포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부동산도 담보로 취급하였다. 1909년 경기도에는 152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포는 개항과 함께 외래자본이 유입되면서 대폭 늘어났다. 1894년 이후 계속 늘어 1927년에는 조선인 799명, 일본인 606명, 외국인 1명 등 1406명이 전당업에 종사할 정도였다. 그 당시 전당포(典當鋪)는 도시 서민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급전을 융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다.²⁾ 전당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으로 중국에서는 이미 2000~3000년 전에 나타났고, 서양 전당업의 역사는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³⁾ 전당포는 개항과 함께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외래 자본, 그 가운데에서도 일본 자본이 유입되면서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전당포는 별반 크지 않은 점포라서 전당 영업을 알리는 신문 광고가 자주 등장하지는 않았다. 어쩌다 눈에 띄는 신문 광고라야 몇 줄짜리 짤막한 안내 문구가 전부였고, 크기도 고작 명함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게 대부분이었다.

돈이 인간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에 대한 신비감은 조금도 풀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본 논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그 목적에 대해 인간에게 돈은 무엇인가라는 가장 원초적인 물음을 두고 시작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학에서 말하고 있는 돈의 기능과 기존의 인문학 안에서의 단편적이고 극히 제한된 돈이라는 연구에서 벗어나 인간에게 돈이 얼마나 특수한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 사용시기와 목적조차 명확하지 않았던 증여, 화폐, 금전적 가치를 대신했던 물권(物權),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대신하기도 했던 권력이 담겨있었던 전당포라는 공간에 대해 경제와 문학이 융합된 학제간의 교류연구로 한일 근현대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전당포의 의미를 찾기 위해 우선 생활전선에서 인물들과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 재해석 및 재발견을 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경우 나쓰메 소세키 『미치쿠사(道草)』와 우노 코지 『헛간 속(蔵の中)』을, 한국의 경우 현진건의 『빈처』와 염상섭의 『숙박기』에 나타난 한일 양국의 문학작품에 형상화된 전당포라는 공간을 중심인물들과 금전과의 갈등을 통해 추적해 보고자 한다.⁴⁾ 또한 전당포

2) 한국경제 2013년5월20일자「천자칼럼」참조

이탈리아보다 60여년이나 앞선 셈이다. 전당포는 높은 이율 때문에 고리대금의 대명사로 여겨져 강도들의 범죄 대상이 되기도 했다. 도스토예프스키 소설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전당포 노파를 살해한 것도 이런 연유다.

3) 량샤오민 저, 서아담 역(2008)『중국 거상에게 배우는 부의 전략』김영사, p.103

4) 본 논문에서 한국과 일본의 작가와 작품 선정에 대해 논자는 다음과 같이 밝혀두기로 한다. 우선 한일 비슷한 시기를 살았다는 점, 작품 속에 나타난 ‘전당포’의 실체를 분석 정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작가의 생애와 ‘전당포’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진행을 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 다루는 작가의 작품에 ‘전당포’에 대한 장소가 상당부분 많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인물간의 갈등, 시대적 생활양식 및 풍경묘사 면에서도 자본주의 제도 안에서 개인의 감정변화를 충분히 잘 표현해 내고 있다는 면에서 한국 과 일본의 전당포는 역사적 영향관계라는 연계성으로 인해 인물들과의 영향관계에서 어떤 교차지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작가와 작품이 필요에 따라 추가 보완하기로 한다.

라는 공간을 빌려 이루어지는 인물간의 금전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 첫째, 모험심의 발로와 둘째, 식민지배자의 입장과 식민피지배자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제도권 안에서 인간의 감성이 시대의 본질에 따라서 얼마나 처절하게 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과 일본 각각의 시대적 상황에서 바라볼 때 당시 새로 도입된 서구의 문물, 근대도시와 자본주의가 사람들의 감정의 변화가 크게 다르지 않을 터이지만 전체적 흐름을 이해하는데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하여 문학작품에 나타난 전당포와 관련한 논문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장경학의 「한국법에 있어서 전당포 및 질권의 발전」⁵⁾, 권용우의 「전당포 영업법상 임권제도(賃權制度) : 現代法을 中心으로한 考察」⁶⁾, 김용식의 「日本 近世 金融業에 관한 研究 : 근세 일본의 상업 발전에 미친 영향」⁷⁾과 같은 전당포, 금융업과 관련하여 그 연계선상에서의 논문은 찾아 볼 수 있다. 『미치쿠사(道草)』와 『빈처(貧妻)』 관련 논문은 대부분 많은 연구자들이 부부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노 코지의 『헛간 속(蔵の中)』을 비롯 우노 코지에 대한 전반적 작품 연구는 다른 일본근현대 작가들에게 비해 연구가 미진한 반면, 염상섭의 경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를 다루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앞서 논자가 언급한 네 명의 작가에 대해 지금까지 전당포에 관한 연구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교차 비교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극히 제한된 속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지금까지 어두운 일제강점기 때문에 한일 영향에 관한 연구자체가 체계화되지 못했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연구가 제대로 진척된 적이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연구지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학제적 연구 경험이 축적되어 가고 있지만, 이 또한 경제학에서의 돈의 기능에 대한 연구로 제한적이며, 인문학에서는 금전, 돈, 화폐에 대한 고전과 근현대로 나뉘어 극히 일부만이 개괄 정리된 연구로 한정적이었음을

5) 장경학(1959.8) 「한국법에 있어서 전당포 및 질권의 발전」 『법조』 8.8, pp.12-36

6) 권용우(1969) 「典當舖 營業法上 賃權制度 : 現代法을 中心으로한 考察」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김용식(2004) 「日本 近世 金融業에 관한 研究 : 근세 일본의 상업 발전에 미친 영향」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알 수 있었다. 박상하는 『경성상계』라는 저서를 통해 조용하고 아름다운 조선의 도읍 한성에서 근대 상업도시로 급변하는 경성의 모던(modern) 풍경을 전차와 백화점을 앞세운 근대의 달콤한 유혹 그 속에 숨겨진 모든 것에 대해 사람은 누구나 그 무언가를 팔면서 살아간다고 시작하면서 당시 상업사회의 주무대지였던 명동과 종로의 도시 이야기들로 독자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타카하시 타치가와(高橋刀川)는 『在 韓成功之九州人』의 저서에 의하면 한성에서 처음으로 전당포를 경영한 사람은 모리 가쓰지(森勝次)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모리는 어려서 부친을 잃고 가족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아픔을 맛보았다. 소년시절 모리는 독지가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 조선으로 건너와 목욕탕과 잡화점을 열었다. 하지만 1887년 화재로 가게가 소실되자 자금을 차입하여 조선인을 상대로 한 전당포를 개업했다. 모리는 청일전쟁이 일어난 뒤 피난 때문에 방패된 토지와 가옥을 사들였다. 러일전쟁 시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매입을 시도해 수십 호의 가옥을 소유하기에 이르렀다⁸⁾고 논하고 있다. 또한 타카하시 타치가와는 구기모토 도지로(釘本藤次郎)는 1895년 4월 불과 20원 정도의 철물을 들고 인천으로 건너와 행상을 시작했다. 7월에는 한성의 일본인 거류지에 노점을 펼쳤다. 10여년 후 그는 ‘경성의 철물 왕’이 되었다⁹⁾고 하면서 화폐의 유동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다쓰마는 1895년 12월 인천으로 건너와 다음해 1월 한성의 일본인 거류지에 가메야 상점이라는 서양 잡화, 양주, 식료품점을 열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는 점원이 20여명으로 늘어났다.¹⁰⁾ 1897년 2월에 16곳밖에 없었던 한성의 일본인 전당포는 1890년대 말에는 약 40곳으로 늘어났다. 손님의 대부분은 조선인이었다. 전당포 금리는 고율이어서 이익이 많았다. 외교관이었던 시노부 준페이(信夫淳平)는 『韓半島』(1901)라는 저서에서 전당포에 대해 「본방 상인 가운데 조금이라도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대개 새로운 사업이나 장사를 벌이지 않는다. 전당업이나 대금업을 여는 것이 이익이 많으며 다른 것은 생각할 여념이 없는 것 같다. 다수의 본방 상인이 서로 예의 경쟁하여 지혜를 짜내는 것은 당당한 일한무역의 진흥책이 아니라 사소한 전당업과 대금업이다」¹¹⁾라고 했다. 그리고 「본방 상인은 신의를 가볍게 여겨 계약에 책임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장사」¹²⁾라는 풍조가 일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이 무렵 대다수 일본인 상인에게 두 번째는 완력을 휘두르는 것이었다. 또 「조선인에 대한 경멸이 극심해서 심지어는 손님에 대해서조차 불친절하다. 언어 사용이 거칠고 폭력적이어서 마치 노비를 대하는 것 같았다」¹³⁾고 한다. 따라서

8) 高橋刀川(1908)『在 韓成功之九州人』虎與号書店, p.6

9) 전계서, pp.160-163

10) 전계서, pp.130-132

11) 信夫淳平(1901)『韓半島』東京堂書店, p.50

12) 전계서, p.20

이와 같은 전당포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정리해 보면, 한국이든 일본이든 전당포가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은 흥미롭지만 좀 더 면밀하고 상세하게 살펴봐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 어느 한쪽의 집중 연구보다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 교차점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작품 속 중심인물들과 금전과의 갈등관계를 분석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함께 동시대를 거점으로 했던 전당포의 그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나쓰메 소세키와 우노 코지의 작품에 나타난 전당포의 역할

3.1 나쓰메 소세키의 『미치쿠사(道草)』의 겐조(健三)에게 금전적 갈등

『미치쿠사』는 1915년 6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02회에 걸쳐 도쿄, 오사카의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연재된 장편소설이다. 1915년 10월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에서 간행되었으며 소세키가 자신의 체험을 소재로 한 유일한 자전적 소설로 평가받고 있다. 『미치쿠사』의 소재가 된 것은 소세키가 영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1903년부터 1905년 처녀작 『나는 고양이로소이다(吾輩は猫である)』를 발표하기까지 기간의 전후 실생활이다.¹⁴⁾ 『미치쿠사』의 주인공 겐조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소위 엘리트 지식인이다. 그러나 그가 고국에 돌아오니 아내와 아이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고, 재력이 장인은 재산을 몽땅 잃고 보증을 서달라고 겐조를 찾아오는 처지다. 연락을 끊고 살았던 양부가 갑자기 나타나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아내는 귀중품을 전당포에 맡기는 상황들을 겪으면서 타의에 의해 돈에 자유스러울 수 없는 관계들로 인해 괴로워하는 고독한 인간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13) 本年 上半期間 仁川港金融ノ景況(1896)『日韓通商協會報告』16, 日韓通商協會, p.2

14) 권혁건(2007)『나쓰메 소세키-생애와 작품』고려대학교출판부, p.35

작품 첫 부분에서 주인공 겐조(健三)가 먼 곳에서 돌아와 도쿄(東京) 고마고메(駒込)에 살림을 차렸다는 내용이 나온다. 겐조가 살았던 고마고메의 집은 작품 속에 묘사된 여러 내용을 참고해 볼 때, 소세키가 영국 유학에서 돌아와 살았던 도쿄(東京) 혼고구(本郷區) 고마고메(駒込) 센다기초(千駄木町) 57번지 집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현재의 주소로는 도쿄 분쿄구(文京區) 무코가오카(向丘) 2초메(丁目) 20번 7호이다. 특히 전당포와 관련하여 소세키 어머니 치에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부분이다. 소세키 어머니 「치에의 친정집은 도쿄 요쓰야(四谷)의 오오반초(大番町)에 있는 열쇠가게(鍵屋)라는 이름을 가진 전당포 겸 대금업을 하는 집이었다. 치에는 그 집안의 가장인 후쿠다 쇼베에(福田庄兵衛)의 셋째 딸이었다. 치에는 10년 정도 무사 집안에서 고용살이를 한 후 시타야(下谷)의 어느 전당포 집으로 시집갔지만 결혼은 실패로 끝났다.」

작품 시작에서부터 겐조는 양부 시마다(島田)와의 우연한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뭔가 불안과 초조를 일관 느낀다. 더욱 작품 초반 겐조의 불안과 초조가 단순히 누군가 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닌 온당함은 겐조가 누나 집을 방문했을 때 ①<용돈을 올려달라는 누나 이야기>, 어렵기만 하면 뒤편 들고 나가 파는 형편인 형은 동생의 하카마를 빌지 않으면 장례식조차 참석할 수 없는 처지에 ②<생활경제의 궁핍함을 느끼고 사는 형> 시마다 대리인 요시다 도라키치(吉田虎吉)의 등장과 함께 시마다가 현재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③<다달이 얼마간 시마다에게 돈을 보내달라는 부탁>과 어린 시절 느꼈던 교활함과 인간의 추악함을 목격하게 해준 양모 <오쓰네(御常)가 갑자기 남루한 모습으로 찾아온 것>은 겐조에게 부양의 책임 그것이 다름 아닌 금전에 대한 불안으로 더욱 고조 된다. 겐조에게 있어 금전적 부담은 시마다의 등장과 누나와 형만이 아니다. 아내의 친정 즉 ④장인과의 얽히는 보증문제로 인한 금전관계에 대해 「처갓집을 덮치는 경제상의 궁핍함은 뱃멀미를 느낄 때와 같은 동요를 안겨준다」¹⁵⁾라고 겐조 자신이 느끼고 있는 처갓집에 대한 감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단락이다.

이처럼 누나와 형, 양부모 시마다와 오쓰네, 처가의 장인까지 모두 타의에 의한 금전적 갈등의 문제는 돈과 얽히는 겐조 자신만의 내적 갈등 형태로 ‘돈’과 연루되어 있다. 특히 19장 겐조에게 있어 과거 부친이 양부 시마다에게 겐조의 양육비라는 명목 하에 돈을 준 것을 계기로 절연(絶縁)을 하게 되는데 겐조에게 돈이란 인간관계마저 끊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으로 돈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깨닫는다. 이는 과거 겐조의 친부가 죽기 전 겐조를 두고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금전관계에 대한 ‘서류몽치(書付の束)’¹⁶⁾를 보고 돈과 인간관계에 대한 더욱 어두운 면을 느끼는 데 발단이다. 이에 대해 겐조와 주변인 ①누나, ②형, ③양부모, ④처가의 장인으로 나누어 각각 겐조에게 있어 금전적 부담과 금전의 의미 나아가 ‘돈’이 갖는 가치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는 일정한 차이가 느껴진다.

20장에서는 겐조의 가정생활 특히 경제사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일하고 받는 수입을 몽땅 아내에게 맡기는 겐조」¹⁷⁾, 「자신에게 돈이 필요할 때는 거리낌 없이 아내에게 청구했다. 다달이 사는 책값만 해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아내는 언제나 잠자코 있었다. 경제에 어두운 그는 가끔 아내의 살림솜씨가 엉터리라고까지 의심했다」¹⁸⁾ 이에 대해 겐조의

15) 본 장의 텍스트는「夏目漱石(2009)『道草』岩波書店」을 사용했음. 이후 주(注)에 표기 되는 텍스트 인용은 「텍스트24, p.67」과 같이 간략하게 표기하겠음.

16) 텍스트31, 텍스트32 : 서류몽치에는 수속서, 계약서 등 장부가 차례대로 정리되어 있고 아버지가 시마다에게 매월 3, 4엔씩을 준 기록도 있다. 문서 끝에는 양자였던 겐조의 호적을 생가 쪽으로 고쳐주지 않은 것과 겐조를 호주로 고쳐 그의 인감을 남용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린 예가 열거 되어 있다. 아버지가 시마다와의 인연을 끊을 때 양육비를 시마다에게 건넨 문서까지 나와 있다.

17) 텍스트20, p.56

아내는 다달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신의 기모노와 오비를 전당포에 잡힌 것을 겐조에게 이야기한다. 겐조 입장에서는 한 번도 전당포를 출입해 본적이 없는 그였기에 자기보다 몇 배 가난한 경험을 가져보지 못한 아내가 태연하게 그런 곳에 출입할 리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아내는 단골 전당포까지 있는 아마노 할머니에게 부탁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안 겐조는 아내에게 사주지도 못하는 옷을 아내가 시집을 때 친정에서 가져온 옷을 전당포에 잡혀서까지 부족한 가계를 꾸렸다는 것은 남편으로 틀림없는 수치스러움과 자격불능으로 여겼을 것이다.

겐조는 유년 시절 누이와 형이 걸핏하면 자신들의 나들이옷을 보자기에 싸들고 살그머니 밖으로 나가거나 또는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전당포와 옷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되어져야 할까. 서양에서 최초의 전당포는 1428년 이탈리아의 루도비코 신부가 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전당포 관련 언급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등장했다. 전당포(pawnshop)의 뿌리 말 전당(pawn)은 라틴어로 천(cloth)을 뜻한다. 그때도 가난한 사람들이 옷을 맡기고 급전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측한다.¹⁹⁾ 『미치쿠사』에서 겐조의 아내도 겐조의 형도 유달리 옷과 관련한 대목에서 전당포를 출입하거나 빌리러 오는 대목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겐조의 형은 「동생의 하카마를 빌리지 않으면 장례식조차 참석할 수 없는 형의 처지」²⁰⁾, 「어렵기만 하면 뒤편 들고 나가 파는 형편」²¹⁾으로 형 또한 궁핍한 생활로 인해 전당포 출입은 생계수단의 일종의 마지막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빈곤하게 살고 있는 형을 보면서 가족 중에 제대로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없음과 자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인 현실을 보며 젊은 시절 공부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며 형의 빈곤을 자조한다.

매형 「히다가 늘어뜨리고 있는 회중 금시계와 금줄에 대해 형은 그것이 도금일 거라고 했지만 본인은 샀다고 으시댔다」²²⁾ 출처에 대해 누나는 「월부로 샀을 거야. 어찌면 전당포 물건일지도 몰라」²³⁾라고 이야기한다. 전당포는 물건을 맡기고 돈을 받는 곳이기도 했지만 전당포에서 물건을 구입 가능했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겐조의 둘째형이 병사하기 전 늘 지니고 있던 뚜껑 달린 회중 은시계를 겐조에게 보여주며 나중에 너한테 주마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었던 그 시계였다. 형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는 남편의 말을 존중하여 그 시계를

18) 텍스트20, p.56

19) 한국경제 2013년5월20일자 「천자칼럼」 참고

20) 텍스트33, p.93

21) 텍스트33, p.93

22) 텍스트70, p.193

23) 텍스트70, p.193

겐조에게 주겠다고 식구들 앞에서 소유권만을 이양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의 유품이라고 할 그 물건은 불행하게도 전당포에 잡혀 있었고 당시 겐조에게는 꺼낼 금전적 능력이 없었다. 그는 형수에게서 소유권만 이양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그 시계에는 정작 손도 대보지 못한 채 여러 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히다가 문제의 시계를 품속에서 꺼냈다. 시계는 몰라보리만큼 번쩍번쩍 닦여 있었고 새 줄에는 산호 구슬 장식까지 붙어 있었다. 겐조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한 듯한 기분을 느낀다. 전당포에서의 비밀스러운 거래, 금전불리기는 매형 히다의 철저한 계산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겐조의 입장에서 볼 때 둘째형의 유품 회중 은시계가 전당포에서 그 물건을 받는 매입자와 그 물건을 다시 사들여 상품의 가치를 높인 매형, 그리고 매형은 이 시계를 다시 형에게 건네는 이들의 제2, 제3의 교환거래가 이루어진 전당포라는 공간이야말로 명백히 인간의 잔꾀와 꼼수를 생산해 만들어낸 여유 있는 자, 가진 자들만의 전유물에 불과한 공간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3.2 우노 코지의 『헛간 속(蔵の中)』의 야마지(山路)에게 금전적 갈등

우노 코지(宇野浩二, 1891~1961)는 사소설(私小説)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소설 작가로 꼽힌다. 소년시절을 오사카(大阪)에서 보냈으며, 1911년 와세다(早稻田) 대학 영문과에 입학했으나 중퇴했다. 외국작품을 공동으로 번역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 작가 히로쓰 가즈오(廣津和郎)와 알게 되었으며 히로쓰 가즈오의 소개로 『헛간 속』(1918)을 발표했다. 같은 해 『고뇌의 세계(苦の世界)』(1918~1921)를 통해 인간의 삶의 비참함과 해학을 오사카 사람다운 꾸밈없는 능변으로 경쾌하게 묘사해 인정을 받았다. 이후 작품의 폭을 넓혀, 일종의 구원의 여성에 대한 사모와 인생의 어둠이나 중압감을 견뎌내는 인간의 낭만적인 동경(憧憬)을 그린 『꿈꾸는 방(夢見る部屋)』(1922) 등을 발표해 이색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했다. 그 뒤 건강이 나빠져 창작력이 쇠퇴하기도 했지만 『고목이 있는 풍경(枯木のある風景)』(1933)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복귀했다. 아내의 이복 여동생 스즈키 코우(鈴木コウ, 작중에서는お仙)를 모델로 한 소설 『잔재주가 많으면 궁하다(器用貧乏)』(1938~1939)는 그의 대표적 작품 중의 하나로 간결하고 냉정한 관찰자 수법을 써서 불행한 한 여인의 삶을 밀도 있게 그린 걸작이다. 만년에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에 대한 회상적 작가론을 많이 썼으며, 히로쓰 가즈오의 영향으로 마쓰카와(松川) 사건²⁴⁾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참으로 기이한 이야기(世にも不思議な物語)』(1955)를 쓰는 등 현실에 대한 응시 속에 엄격한 창작태도를 고수해나갔다. 이처럼 우노 코지의

24) 1949년 8월 17일 도호쿠 선 마쓰카와 역 부근에서 발생한 열차전복사건으로 국철 노조원과 공산당원 20명이 검거되었으며 여론의 비난을 좌익세력에 돌리도록 하는 데 이용 됨.

작품의 대부분의 소재는 가난과 여성이 그 중심임을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노 코지 『헛간 속』에 나타난 문학작품에 형상화된 전당포라는 공간을 통한 가난과 돈의 의미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전당포라는 공간을 빌려 이루어지는 인물과 작가와의 관련성에 대한 점검함으로써 우노 코지의 금전관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 하겠다.

어느 날 중심인물 야마지(山路)는 전당포에 가기로 결심한다. 이는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돈을 빌리기 위해 저당 잡힌 자신의 기모노를 보기 위해서다. 하숙집에서 건너편 집을 보던 야마지는 창가에 걸린 기모노들을 보고 자신의 기모노들이 그리워졌다. 고민하던 그는 거풍(虫干し)이라는 핑계를 대고 기모노를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어 전당포로 발걸음을 옮긴다. 전당포의 지배인과 약간의 실랑이 끝에 허락을 구한 야마지는 전당포의 창고 2층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기모노와 이불에 파묻혀 자신의 기모노와 얽힌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다. 『헛간 속』은 중심인물 마흔 살 정도의 소설가 야마지가 기모노와 여성에 대한 집착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 자신이 아끼는 기모노를 전당포에 맡기고 전당포에서 일부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생활한다. 우노 코지는 이러한 중심인물 야마지를 특정한 인물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며, 소설가 치카마쓰 슈코와 자신의 모습을 일부 묘사하되 대부분은 픽션의 요소를 가미했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작품 인물군들을 살펴보면 우노 코지가 『헛간 속』을 썼던 1919년의 심경상태를 잘 엿볼 수 있는 만큼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야마지는 중년의 독신 소설가다. 살아오는 동안 수없이 많은 친구와 여자들이 그를 버리고 떠났으며 현재는 돈도 신용도 모두 잃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고독한 삶 속에서 그를 유일하게 신용해주고 그가 행복을 느끼게 해 주는 장소가 바로 전당포이다. 또한 전당포에 저당된 「자신의 기모노→야마지의 과거 회상→작가 우노 코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지금 제가 돈을 빌리기 위해 인감을 파 봤자 십원의 돈도 빌려 줄 사람은 없습니다. (중략) 그런 저를 이 세상에서 누구 한 사람 이 이상 신용해준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시겠지요 그것은 전당포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기모노들이 이렇게까지 우대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부모들이 양자로 들인 아들이나 딸 같은 며느리들이 각자 장래를 풍족하게 지내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느끼게 되는 만족감을 저는 느꼈습니다.

작품 시작부분에서 중심인물 야마지는 전당포에 가기로 결심하는 장면에서 출발한다. 전당포에 가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물건을 맡기고 급전을 구하거나, 다른

하나는 급전을 갖고 맡겼던 물건을 되찾아오는 경우이다. 하지만 『헛간 속』의 중심인물 야마지의 경우는 다르다. 급전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맡긴 물건을 찾아오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연히 창문너머로 건너집의 2층에 걸린 붉은 단풍 무늬의 기모노를 보고 전당포에 맡긴 자신의 기모노를 보고 싶어 전당포로 찾아가는 것으로 작품은 시작된다. 급전으로 인해 신용을 잃은 야마지는 친구들에게 절교를 당하거나 수많은 여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15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일하게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은 것은 기모노와 그것을 맡겨둔 전당포뿐이며, 전당포 창고 안에 자신의 수많은 기모노들이 종이로 감싸져 상등품으로 수납장을 점령하여 우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만족감을 느낀다. 「15년, 20년」이라는 시간적 의미상으로 야마지는 전당포 주인과는 상당히 오랫동안 거래를 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거품을 하고 싶다는 핑계로 십 년 이상 보지 못한 무수히 많은 자신이 맡긴 기모노들을 만나며 과거의 시간들을 회상한다. 야마지의 개인적 취향으로 보기에는 어딘가 비정상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불필요한 자신의 사정을 자지구레하게 늘어놓을 필요 없으며, 자신을 유일하게 신용해 주는 공간에서 야마지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다.

후쿠오카에서 태어난 우노 코지는 아버지를 세 살에 여의고 동경으로 상경하여 하숙하기까지 친가 및 외가의 친척집을 전전하는 생활을 하였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고모부가 사업실패로 모두 잃어버리게 되어 금전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유복하지 못한 유년기를 보내게 되었다. 우노 코지에게 금전적 고달픔은 평생 그를 따라다닌 가난이라는 단어와 맞물린다. 가난은 그가 상경해서도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20대 초반 그의 연혁을 살펴보면 ‘생활고’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등장한다. 그가 생활의 안정을 찾은 것은 스물여덟 살 경 쓴 『헛간 속』과 『고녀의 세계』을 발표하여 문단의 주목을 받고 어느 정도 작가로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면서이다. 그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그 자신이 겪은 가난의 모습도 묘사되지만 당시의 사회와 서민들의 모습에서도 가난을 읽어낼 수 있을 만큼 우노 코지에게 가난은 그만큼 특수하다. 특히 이 『헛간 속』이라는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한 1918년 전후는 민중의 가난을 그에게 여과 없이 보여준다. 1917년부터 쌀값은 폭락과 폭등을 반복했고, 제1차세계대전으로 일어난 호경기는 벼락부자를 양산하는 한편 민중의 생활난의 악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1918년 쌀값이 폭등하고 지주의 매석(賣惜), 상인의 투기를 비롯한 다이쇼 후기의 일련의 사건들은 민중의 가난을 더욱 심화시켰고 이는 당시 가난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던 우노 코지에게 그대로 흡수 되었을 것이다. 우노 코지는 이때를 회상하는 글에서 당시 시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하숙집에서 언제 쫓겨날까 때때로 걱정하면서도 평소에는 그런 일을 잊어버리고 소설을 쓰고

싫어 가슴이 설레었던 것은 쌀 소동의 불뚱이 폭행과 습격의 형태로 바뀌면서 도쿄 시내 여기저기가 황폐해졌던 무렵이다.(중략)긴자로 나간 일이 있었는데 그 큰 상점의 쇼윈도 유리가 돌 세례를 맞았는지 커다란 구멍이 군데군데 뚫려 있었다. 그리고 그런 가게가 도처에 널려 있었다.

당시 가난이란 우노 코지에게 있어 내면 깊숙하게 박혀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내면 속의 가난은 실제 쇼와시대의 대공황으로 이어져 내면에 이어 피부로까지 느끼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난의 생활전선 속에서 그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단 한 곳 전당포는 예외였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만 맡기면 그 물건의 가치에 따라 어느 정도의 돈을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창구였기에 자연스럽게 전당포를 전전공공할 수밖에 없었고 전당포와 인간의 관계에는 물품으로 이어진 일정한 신뢰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만큼 필수불가결한 관계에 놓여 진 것을 우노 코지는 작품 『헛간 속』을 비롯하여 곳곳에 그리고 있다.

4. 현진건과 염상섭의 작품에 나타난 전당포의 역할

4.1 현진건의 『빈처』의 K에게 금전적 갈등

『빈처』는 1921년 「개벽」7호에 발표된 단편 소설이다. 작가 수업을 하고 있는 가난한 무명작가의 이야기로 일인칭 소설이다. 이 작품은 1920년대 지식인의 삶을 소재로 하여 그들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고통을 그리고 있는데, 작가 자신의 모델로 삼았다는 점에서 자전적 소설로 볼 수도 있다. ‘나’와 아내가 따뜻한 애정의 회복을 통해 그동안의 서먹서먹함을 극복하고 참다운 가정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하지만 ‘나’의 가난은 부부간의 애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나’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돈을 벌지 못하면 ‘나’와 아내는 다시 갈등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점을 단순히 부부간의 애정 회복 문제에서 찾고 있는 것은 이 작품의 한계로 남는다.

작품 시작에서 ‘K’는 동년배이면서 촌수가 가까운 친척 T의 방문을 떠올리며 불쾌한 기분을 느낀다. 더욱 작품 초반 K의 금전에 대한 타의에 의한 내적 갈등의 발로(發露)는 1장에서 억제하기 힘든 불쾌한 기분을 느끼는 것을 시작으로 4장 작품의 끝부분에서 그 불쾌한 기분이 해소되면서 잠정적으로 갈등이 멈추는 듯 보인다. 그 불쾌한 기분이란 『미치쿠사』의 겐조와 마찬가지로 누군가 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닌 주변 가족들 즉 한 집안의 가장인 남편으로서

①<살 도리를 해달라는 아내 이야기>나 한성은행에 다니고 있는 T가 찾아와 자기 아내에게 줄 양산을 샀다고 자랑하며 물가 폭등, 월급이 오른 이야기, 주권(株券)을 몇 주 사 두었더니 꽤 이익이 남았다든가, 각 은행 사무원 경기회에서 자기가 우월한 성적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②<T와 생활경제에서 놓인 차이에서 오는 불쾌함>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T는 착실히 돈벌이를 하지만 K는 집안의 대소사(大小事)에 돈 한 푼 보태지 못하는 대조적인 모습의 두 사람은 늘 ③<친척 간에 비교거리>²⁵⁾가 되는 것이 또한 K에게 있어서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일종의 불쾌감을 넘어 자격지심을 느낀다. 더욱이 친척 간의 비교의 끝은 「T는 잘 살 것이고 K는 거지가 될 것」으로 돈의 많고 적은 곧 인간 됨됨이를 평가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다. K는 「내가 무자격한 탓」으로 스스로를 멸시, 자조하게 되는 그래서 더욱 견딜 수 없는 쓸쓸함을 느낀다. 이에 대해 나의 주변인 ①아내, ②T, ③친척들로 나누어 각각 K에게 있어 금전적 부담과 금전의 의미 나아가 ‘돈’이 갖는 가치에 대해 느끼는 감정의 구체적인 눈은 향후 진행 시켜나가도록 한다.

1장에서는 K의 가정생활 특히 경제사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것이 어찌 없을까?”(중략)기구(器具)와 의복을 전당국²⁶⁾ 창고에 들이 밀거나 고물상 한구석에 세워 두고 돈을 얻어 오는 수밖에 없었다.”²⁷⁾ 『빈처』의 첫 장면이다. 가난한 문인의 아내가 옷장을 열고 모본단²⁸⁾ 저고리를 찾다가 망연자실한다. 지금까지 돈 한 푼 벌지 못한 남편은 말없이 책장을 뒤적이며 말뚝을 되새긴다. 그동안 아내는 가구 집기며 옷들을 전당포나 고물상에 맡겨 끼니를 이어왔는데 하나 남은 모본단 저고리도 아침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찾았을 게 분명함을 K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현진건은 피부를 파고드는 생활고에 시달렸는데 정신적 기갈(飢渴)과 극도의 궁핍에 시달렸던 우리 근대가 낳은 소설형 인간 그 자체였다. 현진건의 가난에 대한 경험은 작품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K는 지식의 목마름을 느끼고 지나(支那)와 일본에서 소위 지식인으로 생활을 했지만 금전의 탓으로 지식에 대한 만족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처가 덕으로 살림을 꾸리게 되지만 생활은 갈수록 곤란해 질 뿐이다. 「나는

25) T와 K를 평가하는 친척들의 기준은 돈이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는 그들은 분명 ‘나’와 대립적인 위치에 있다. 그들은 ‘나’라는 인물이 왜 문학을 하고, 문학을 통하여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려고도 들지 않는다. 아울러 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다.

26) 최서해, 현진건, 나도향(2004)『운수 좋은 날 외』삼성출판사, p.77
전당국(典當局) : 전당포, 물건을 맡기고 돈을 꾸는 곳.

27) 본 장의 텍스트는 「최서해, 현진건, 나도향(2004)『운수 좋은 날 외』삼성출판사」를 사용했음. 이후 주(注)에 표기되는 텍스트 인용은 「텍스트1, p.70」과 같이 간략하게 표기하겠음.

28) 국어사전편찬회편(1994)『국어대사전』민중서원, p.563

모본단(模本緞) : 무늬가 있는 비단의 일종. 본래 중국산인데 품질이 곱고 아름다운 광택이 남.

보수 없는 독서와 가치 없는 창작으로 해가 지고 날이 새며 쌀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망연(茫然)케 몰랐다. 그래도 때때로 맛있는 반찬이 상에 오르고 입은 옷이 과히 추하지 아니함은 전혀 아내의 힘이었다.»²⁹⁾에서 K는 아내 덕분에 생활이 유지되고 있음을 밝힌다. 무엇보다 아내는 친가에 가서 구차한 소리를 들어가며 이것저것 얻어 오며, 세간과 의복에 손을 대 옆집 할멈에게 돈푼을 주고 시켜 전당포에 맡긴다. 유학을 다녀온 K였지만 마땅히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심호는 「식민지 경제는 악화되어 실업자의 수는 늘어만 갔으며, 근대적 교육기관이 증설된 만큼 이를 졸업한 인텔리층 숫자도 함께 늘어났지만, 이들을 소화할 수 있는 ‘월급쟁이’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그에 따라 고급실업자는 더욱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설사 취직자리를 얻었다고 해서 생활이 넉넉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힘들기는 월급쟁이나 취직을 못한 실업자나 비슷했다.»³⁰⁾고 언급했다. 또한 「신여성」 1926년 6월호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온다. 「어느 학생의 집에서는 남들은 모두 깃옷을 입었으니 자기도 해내라며 야단이 난다. 하는 수 없이 부모들이 이것저것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옷을 지어 입힌다.»³¹⁾ 당시 미디어에서도 전당포라는 공간을 공공연히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으로 묘사하며 근대적인 소비를 향유하며 소비를 부추기는 공간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도 분명히 식민지 시대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빈처』의 K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다. 생활 능력이 없는 K는 무명작가로서 처가 덕으로 집과 세간을 준비했으나 보수 없는 독서와 가치 없는 창작으로 해를 보내면서 언젠가는 훌륭한 작가가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로지 독서와 습작에 전념한다. K의 생활은 아내가 가구나 옷가지들을 전당포에 맡겨 얻는 돈으로 꾸려나간다. 반면에 K는 돈에 대한 최소한의 집착도 보여주지 않고 그 나름대로 명분을 지키면서 살아간다. 은행원 T가 제 처에게 줄 양산을 펴 보일 때, 아침거리를 장만하기 위해 저당 잡힐 물건을 찾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그리고 처형이 아내의 신을 사들고 방문했을 때도 K는 단지 자신이 뭐라도 할 수 없음에 쓸쓸한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것은 가난을 참고 견디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그러한 아내에게 물질적인 행복을 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그런데 그 쓸쓸한 생각은 때로 「아아, 나에게 위안을 주고 원조를 주는 천사여!」³²⁾라는 아내에 대한 찬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저 따위가 예술가의 처가 다 뭐야!」³³⁾라고 때로 예술가인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내에게 비난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K의 금전에

29) 텍스트2, p.80

30) 강심호(2005)『대중적 감수성의 탄생』살림, p.67

31) 전계서, p.27

32) 텍스트4, p.98

33) 텍스트1, p.76

대한 내적 갈등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과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예술가의 삶 사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적 갈등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밤낮 남편의 기생질과 구타에 시달리는 처형을 바라보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도 의롭게 지내는 것이 행복」³⁴⁾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원래 자본의 힘은 교묘한 방식으로 문화영역을 경제영역으로 환원시킨다. 전통취향의 구조를 규정하는데 경제자본(산업, 기업, 금융 부르조아지와 관련되며 일반적으로 지성용 취향)이 지배할 것인가, 문화자본(근대예술, 고급용이며 성찰적이고 우주론적인 정통이 정당화되는 부르조아 지성인의 취향)이 지배할 것인가의 문제를 부르디외는 ‘위계들의 위계(hierarchy of hierarchy)’라고 칭했다.³⁵⁾ 즉 『빈처』의 K에게 경제적인 자본, 그러니까 금전의 힘이라는 것은 문화자본으로 직접 전환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유학을 한 엘리트 집단이면서 무명작가로 예술가의 지성인 K는 자신이 가진 문화자본이 금전의 힘에는 도달하지 못함을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4.2 염상섭의 『숙박기』의 변창길에게 금전적 갈등

근대 리얼리즘문학의 지평을 열었던 소설가 염상섭(일본 게이오대학 문학부 졸업, 동아일보 기자)이 전당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고단한 처지를 잡지에 이렇게 털어놓고 있다. 「기세가 공함에 항상 전당포와는 인연이 갖잡게 지내간다. 아침에 매일 나무가 업서도 저녁에 솟혀 너흘 쌀이 업서도 부득이 의복이나 기구를 들고 행낭 뒷골 전당포 문을 두드리지 안을 수 없다.(중략) 나는 지금도 여덜장의 전당포를 가지고 있다(중략) 이제는 전당 잡힐만한 물건이 업서서 잡혀 먹지 못한다고나 할가」 염상섭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들이 이와 같은 생활고와 함께 전당포와의 인연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당포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구한말에 들어서면서부터 비로소 성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전당포 영업도 보다 발 빠르게 진화해 나갔다. 무전 대금, 다시 말해 무언가 전당을 잡히지 않고도 돈을 빌려준다는 신문 광고가 곧잘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다. 그즈음 대금소(質金所) 고목이 「황성신문」에 자주 낸 광고에는 「본소는 착힐한 인(人)에게는 전당 업시 돈을 대급할 터이니 차득하자는 인(人)은 본소로 내의하시오」였다.

『숙박기』 작품은 앞에서 다룬 세 작품과는 다른 지점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숙박기』는 전당포라는 공간이 전혀 비치지 않는다 점은 특기할 사항이지만 염상섭 인생과 문학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대로 전당포라는 공간과의 특별함은 여러 작품에서 이미

34) 텍스트3, p.92

35) 강심호 전계서, p.80

국가, 사상적인 면에서 그 지점들을 읽어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변창길을 들여다 보기로 한다. 변창길은 일본 유학생으로 하숙집을 여러 번 쫓겨나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조선 사람이라는 데 있다. 자기 나라를 반도라 불려야 하고, 변창길이라는 이름 위에는 가타가나로 명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거쳐야 한다. 또한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언어의 문제 역시 다루어지고 있는데 변창길은 일본어를 유창하게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와 일제의 식민 정책을 지지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를 거부하고 조선 사람임을 떳떳이 내세움으로써 당해야 하는 수모와 천시와 차별을 감내해야만 했던 변창길은 하숙집을 하루 만에 쫓겨나 거리를 헤매야만 했다. 작품에서 변창길의 위치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에서 공부를 하는 유학생 신분으로 추측할 수 있다. 최근 그는 아주 불쾌한 일 그것은 하숙집을 옮길 때마다 겪게 되는 고충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작품은 시작된다. 조선인임이 밝혀지자 살고 지내던 하숙집 여주인이 와서는 집값을 선불로 달라는 것인데 원래 후불로 하는 것이 당연하고 사전 계약에도 없는 돈을 달라는 것에 대해 변창길은 조선인임을 실감하게 된다. 이로써 작품에서 조선인은 가난으로 대비됨을 알 수 있다. 가난한 조선인인 변창길은 선불로 지불할 돈이 없기에 일본인 여주인에게 내쫓겨 처량하게 다른 하숙집을 구하는 것으로 작품은 끝난다. 하지만 여기에서 염상섭이 왜 하필 하숙집 주인을 남성 주체가 아닌 여주인으로 설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면 역시 계급 안에서 여성은 약자로 인식되어 있는 만큼 그 여성의 주체에게조차 차별받고 무시 받는 조선인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리얼리티를 주기위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작품 『숙박기』의 변창길이라는 인물을 통해 당시 조선인의 위치가 이방인으로서 어떠했는지 실감할 수 있는 작품이다. 짐멜은 이방인에 대해 「오늘 와서 내일 가는 그러한 방랑자라 아니라 오늘 와서 내일 머무는 그러한 방랑자를 가리키는 것」³⁶⁾이며 「잠재적 방랑자로서 그는 비록 더 이상 이동하지는 않지만 오는 것과 가는 것의 분리 상태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방랑자이다」³⁷⁾라고 강조한다. 변창길의 이방인으로서 생활은 작품에서 세 번의 하숙집을 옮기는 것으로 작품은 종료된다. 아울러 종료지점에서는 자신이 조선인임을 당당히 밝힌다. 일본인들의 집에 하숙을 하기 위해 차별받는 조선인의 모습을 감추고 일본인 행세를 하면서 생활을 이어가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국적을 밝히면서 하숙을 하게 된다. 마지막 부분에 조선인으로서 받는 차별에 「쓸쓸하고 설운 증이 부쩍 목 밑까지 치받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밝히면서 조선인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단락임과 동시에 자신이 숨기려고 한 국적을 밝혔지만 잠재적 방랑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36) 게오르그 짐멜(2005)『짐멜의 모더니티 읽기』새물결, p.79

37) 전게서, p.79

첫 번째 하숙에서 쫓겨나 두 번째 하숙에서 그 이방인의 존재가 어떠한지 잘 드러나 있다. 첫 번째 하숙에서 선금을 지불하지 못해 쫓겨났다가 삼 십대로 보이는 일본인 여주인이 운영하는 두 번째 하숙집을 구한다. 신기하게도 하숙집 여주인은 변창길에게 잘해주며 방을 선뜻 내준다. 여기저기서 방을 구하려다 면박만 당한 변창길은 기분이 좋아져서 집을 꾸려 당장 그 집으로 이사 간다. 여주인은 매우 친절하고 방도 닦아주고 불도 때워준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변창길이 일본인이라는 신분의 전제하이다. 집을 옮겨주는 남자아이들을 보고 변창길은 여주인의 자식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집주인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아무 인기척이 없다. 큰 소리로 사람을 부르자 겨우 올라오는 사람은 늙은 할멈으로부터 하숙집의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여주인의 남편은 안 들어온지 반년이나 되었고 집을 옮겨주었던 아이 중 키가 큰 사람은 자식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여주인의 일을 돕는 일본인 학생이라는 것이다. 이방인 변창길의 불안의 전조가 시작되는 장면은 하숙집에서 숙식을 무료로 제공 받고 있는 일본인 남학생로부터 숙박기를 적어달라는 요구를 받는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자신의 이름이 조선의 것이라는 것을 숨겨왔고 자신이 조선인임을 숨겨왔는데 숙박기에 서명을 하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남은 분명한 것이었다. 변(卍)이라는 한자 이름 가타가나로 적힌 *ペンシヤウキチセン*이라는 발음을 하며 여주인은 그 이름을 한참 들여다보고 조선인임을 알게 된다. 재확인 받으러 온 남학생게 변창길은 화를 냈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방 안에서 기다린다. 조선 사람의 성명이 적어도 일본에서는 언제든 말썽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받는 일로 변창길은 이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조선 학생은 이(李)가이기 때문에 조선 귀족이라고 행세를 하여 일본인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는 일이 내심 부러우면서 이가로 성을 버릴 수 없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결국 여주인은 선불을 내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나가달라는 것이었고 그것을 할 수 없는 변창길은 쫓겨나게 된다. 겨우 하숙집을 구했지만, 조선인이라는 이유, 그리고 조선인들이 선불을 지불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일본인의 술수를 엿볼 수 있다. 짐멜은 「이방인들은 원래 개인들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유형의 이방인들로 인식된다. 그들에게 뭇의 요소는 가까움의 요소 못지않게 일반적」이다.³⁸⁾ 이 논리는 여주인에게 변창길은 가까울 수 없는 머나먼 보편적이지 않은 특정한 인물인 것이 작용한 셈이다. 변변찮은 방도 하나구하지 못하는 벋이 불쌍하여 친구들은 술을 먹고 자기네 집으로 데려간다. 좁디좁은 방에서 여러 명이 쭈그려서 자던 중, 변창길은 갑자기 일어나 그 집으로 향한다.

『숙박기』는 일본에 공부하러 간 조선인 유학생의 처절한 생활기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38) 전계서, p.87

한 달 머물 숙박비가 있어도 받아주지 않는다. 설령 선불을 내었어도 또 다른 요구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일본인에게 조선인은 머나먼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다. 젊은 여주인은 돈이 없는 가난한 일본인 학생에게는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었다. 하지만 숙박비가 없는 조선인 변창길은 쫓아냈다. 이런 차별적인 대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불변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방인이 비록 비유기적으로 집단에 덧붙여 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집단의 유기적 구성원이다. 집단의 통일적 삶은 이방인이라는 요소를 특별한 조건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방인의 지위 즉 변창길이 지니는 유학생이라는 지위는 같은 하숙의 무료로 숙식을 하고 있는 일본인 유학생과 비교 했을 때 이들의 독특한 통일성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그것이 일정한 정도의 가까움과 일정한 정도의 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가까움과 땀의 정도는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모든 관계에 특성을 부여하는 바, 어느 일정한 비율과 상호 긴장 속에서 이방인에 대한 특별하고 형식적인 관계를 초래한다.」³⁹⁾

5. 마치며

시대가 변한 만큼 전당포에 대한 인식도, 시선도 변했음에는 틀림없다. 그것은 어쩌면 시대의 급물살을 타고 시대가 낳은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었던, 남녀 또는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생활양식으로서의 공간이었는지도 모른다. 『미치쿠사』에서 겐조의 ①아내, ②말단공무원인 형, ③매형 히다 이 세 사람은 각각의 생활경제상의 이유로 전당포를 찾는 인물로 등장한다. 또한 이 전당포의 출입은 그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전당포를 출입한 적이 없는 이 낯선 공간이 겐조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부족한 가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전당포를 찾을 수 밖에 없었던 아내를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으로서의 수치스러움을 느끼는가 하면, 젊은 시절 공부를 게을리하여 지금은 말단공무원으로 언제 자리를 잃을지 몰라 불안해하며 동생의 하카마를 빌리지 않으면 장례식조차 갈 수 없는 생활의 불편함을 겪는 형을 보며 지식의 힘은 곧 금전의 힘이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이런 생활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전당포를 찾은 아내와 형과는 달리 매형 히다는 전당포라는 공간이 단순히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공간이 아닌 또 다른 교환가치의 가능성을 활용하여 금전불리기로 자신의 이익을

39) 전계서, p.88 참조.

위해서 인간의 돈에 대한 무한욕심과정을 철저하게 느낀다. 따라서 겐조에게 전당포라는 공간은 인간의 부족함을 빌미로 속이고 속히는 그런 인간의 부(富)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비춰진 것으로 생각된다. 겐조와 마찬가지로 아내의 전당포 출입은 고스란히 남편 K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치쿠사』에서 전당포 출입을 오로지 생존수단을 위한 곳으로 이용한 겐조의 아내, 형이었다면 매형 히다는 잔피와 꿈수로 당시 시장의 교환가치를 활용하여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곳으로 전당포를 활용한 것에 비해 『빈처』에서 생활경제상의 이유로 전당포를 출입하는 것은 오로지 K의 아내 뿐이다.

『빈처』의 주인공 K역시 중국과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온 지식인이지만, 무명작가로 유일한 아내 이외에 그를 인정해 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의 사촌 T는 한성은행을 다니고 있지만 T의 상황은 현재 K와는 대립구조인 월급쟁이와 실업자로 그려져 있고, 그러한 구조는 친척들 사이에 인간됨됨이를 평가하는 그들만의 잣대가 된다. 심지어 대단한 부자인 처가에서 고용살이를 하는 하인들에게조차 K는 그들에게 멸시와 모욕 비소하는 듯한 자격지심을 느끼기까지 한다.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세간과 의복에 손을 대어 전당포로 향하고 있는 일에 대해 K는 아는 척 하지 못하는 부분 역시 지금의 상황이 전당포에 출입하지 않으면 얼마나 생활이 빈곤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내가 애써 찾던 그것도 벌써 전당포의 고운 먼지가 앉았을 만큼 이미 맡긴 물건을 찾지 못한지 오래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며, 종지 하나라도 아랑곳하는 아내가 그것을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고 계속 맡길만한 물건을 찾는 것을 보면 얼마나 무능력한 K로 인해 아내의 정신을 빈곤하게 하는지 유추할 수 있다.

우노 코지에게 가난은 전당포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헛간 속』의 전당포라는 공간은 중심인물 야마지가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저당잡히고 필요한 돈을 빌려 올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사적 공간」으로 시작되지만 야마지가 맡긴 물건에 대한 빌린 돈과 전당포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그 물건은 누군가의 제2의 사적 소유물이 될 수 있는 혹은 원주인에게 돌아갈 수도 없는 「공적 공간」에 머물 수 있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우노 코지의 전당포와의 첫만남과 여성에 대한 집착에 대한 원인 제공은 다름 아닌 우노 코지 어머니였다. 우노 코지는 전당포에 넘나드는 인물을 그의 작품 속에 등장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수필 『전당포의 아이(質屋の小僧)』와 『전당포의 주인(質屋の主人)』에는 그가 왜 처음 전당포에 가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 만큼 본 연구와 그 맥을 함께 이어갈 중요한 작품이다. 우노 코지의 전당포와의 첫 만남은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숨어 있다. 그가 스물네 살 경 어머니가 후쿠오카에서 오사카로 상경하며 함께 살게 되었으나 이것은 곧 그에게 생활고로

이러지게 됨과 동시에 가난이라는 단어를 인생에서 지울 수 없게 되는 큰 사건이 된다. 즉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 어머니가 오히려 자신을 가난의 늪으로 조금씩 빠져들게 한 존재였다는 점은 우노 코지가 여성에 병적으로까지 집착하는 증세로 이어진다. 또한 당시 그는 책방에서 중학교와 국어, 한문, 영어 등의 교과서의 주역본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 책방의 주인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3개월간 단 한 번도 돈을 주지 않았다. 집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던 생활고는 어머니와 자신에게 노이로제와 다툼을 안겨주었다. 결국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전당포를 통해 생활 할 생활비를 빌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우노 코지와 전당포의 관계는 『전당포의 아이』에서 나오는 카네이 소키치(金井宗吉)라는 아이가 『전당포의 주인』에서 전당포의 지배인이 될 때까지 계속 된다.

이처럼 전당포라는 공간은 우노 코지의 『헛간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야마지에게 있어서 전당포의 위치란 생활고를 조금이나마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구원책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쇼와 시대에 접어들어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이 서민들에게 자리 잡히기까지 전당포라는 공간은 서민의 가난을 함께 한 동반자라고 우노 코지는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언제나 소설을 즐겁게 쓴다. 또 자주 시인의 마음이 되어 노래를 부르는 기쁨으로 쓴다. 이제까지도 그랬고 지금부터도’ 이 말은 우노 코지 전집에 적혀있는 작가의 말이다. 전당포라는 장소가 우노 코지의 가난, 생활고에 처한 마지막 희망 혹은 구원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염상섭은 나쓰메 소세키와 우노 코지 그리고 현진건과는 조금 다른 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염상섭은 『숙박기』를 통하여 당시 조선인이 겪어야만 했던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을 변창길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조선인에게 일본에서의 생활은 그 어떤 사회적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일제 식민지 정책 때문이라는 제도적 장치 안에서 지식인 변창길은 조선→도쿄, 특정 공간에 한정시켜 안정시키지 않고 꿈을 쫓아가는 통로를 만들어 도쿄와 서울 거리를 떠돌게 함으로써 이방인으로서의 모험은 결국 부랑자의 신세로 밖에 남는 게 없다.

둘째, 작품 『숙박기』의 변창길은 돈에 의해 휘둘릴 수밖에 없는 유산자(有産者)와 무산자(無産者)로서의 대립구도를 가진 자본주의 안에서 무산자계급이 겪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무산자는 유산자계급에 의해 개인주의를 창출하게 된다. 염상섭은 변창길을 통해 자본주의 안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고군분투하는 캐릭터로 부활시키고 있다. 변창길은 일제 식민지 정책 아래에서 피지배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자본주의제도 아래서 시시때때로 변할 수밖에 없음이 내포되어 있다.

【參考文獻】

- 권용우(1969)「典當舖 營業法上 賃權制度 : 現代法을 中心으로한 考察」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혁진(2007)『나쓰메 소세키-생애와 작품』고려대학교출판부
강심호(2005)『대중적 감수성의 탄생』살림
국어사전편찬회(1994)「국어대사전」민중서원
김용식(2004)「日本 近世 金融業에 관한 研究 : 근세 일본의 상업 발전에 미친 영향」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게오르그 짐멜(2005)『짐멜의 모더니티 읽기』새물결
량샤오민 저, 서아담 역(2008)『중국 거상에게 배우는 부의 전략』김영사
서길수(1987)『개항 후 대차 관계 및 이자에 관한 연구(II) - 민간 식리의 형태와 이자를 중심으로』국제대학
장경학(1959.8)「한국법에 있어서 전당포 및 질권의 발전」『법조』8.8
최서해·현진건·나도향(2004)『운수 좋은 날 외』삼성출판사
한국경제 2013년5월20일자「천자칼럼」
信夫淳平(1901)『韓半島』東京堂書店
夏目漱石(2009)『道草』岩波書店
高橋刀川(1908)『在韓成功之九州人』虎與号書店
日韓通商協會(1896)「本年上半期間仁川港金融ノ景況」『日韓通商協會報告』16

논문투고일 : 2015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10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0월 19일

 <要旨>

한·일 근현대문학에 나타난 생활사적 의미 「전당포(典當舖)」가 미친 영향

겐조에게 전당포라는 공간은 인간의 부족함을 빌미로 속이고 속히는 그런 인간의 부(富)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비취진 것으로 생각된다. 『빈처』의 주인공 K역시 중국과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온 지식인이지만, 무명작가로 유일한 아내 이외에 그를 인정해 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 우노 코지에게 가난은 전당포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헛간 속』의 전당포라는 공간은 중심인물 아마지가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저당 잡히고 필요한 돈을 빌려 올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사적 공간」으로 시작되지만 아마지가 맡긴 물건에 대한 빌린 돈과 전당포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그 물건은 누군가의 제2의 사적 소유물이 될 수 있는 혹은 원주인에게 돌아갈 수도 없는 「공적 공간」에 머물 수 있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염상섭은 『숙박기』를 통하여 당시 조선인이 겪어야만 했던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을 변창길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조선인에게 일본에서의 생활은 그 어떤 사회적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전당포라는 공간이 곧 당시 서민들의 삶과 인생, 서구에서 시작된 근대는 일본을 거쳐 한국 당시 조선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것은 나름의 굴곡과 변질을 거쳐 민중의 삶을 대변, 표상하고 있다. 근대인의 생활방식이 화폐에 의존하다보니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고를 화폐경제가 결정짓고 인간관계의 윤리가 깨지며 화폐 소유 여부에 따라 인간관계가 맺어진다는 공통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하겠다.

 The Influence of the Pawnbroker's Shop Appeared in the Korean and Japanese
 Modern/Contemporary Literature on the Meaning of Life History

For instance, Kenzo is deemed to see the pawnbroker's shop as a space in which human's insatiable desire for wealth (富) becomes laid bare plainly as what we humans lack continue to deceive, and to be deceived, by ourselves. K, the protagonist in *Bincho* (Poor Wife), albeit an intelligentsia educated in China and Japan just as Kenzo is, is described in it as an obscure, lesser known writer whom no one but his wife recognize. What poverty means to Uno Koji indispensably relates to the pawnbroker's shop. The pawnbroker's shop appeared in *Heotganan* (Inside the Hut) tends to dually imply to its protagonist Yamaji as a consequence of the reversal and metamorphosis in its function: it first starts as a *private* space which provides him with a channel through which he is able to borrow money he needs as he had to have all his belongings foreclosed for his personal reasons, and it later ends up remaining a *public* space in which if the money he borrowed from the pawnbroker's shop and those generated with time according to the interest rates it determined cannot be repaid as scheduled, what he previously left to the pawnbroker's shop as security for a loan might not return to him as their original owner, or their original ownership would be transferred to some else's. The author, Yeom Sang-seop, describes in *Sookbakgi* (Chronicle of Lodging) the everyday physical and mental sufferings of Koreans living in Japan during the period of the Japanese colonization through its protagonist, Beon Chang-gil. The lives of Koreans in Japan during the colonial time have nothing to do with, and are not benefited from, their social positions as the colonial subjects in it, no matter how high and successful theirs might be. The pawnbroker's shop as a space exerted its influences on the then lives of the populace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in the middle of the rise of the modernism/modernist movement, started initially from the West, that led to affecting the then Korean society on a massive scale via Japan; it therefore represents the then lives of the populace after having undergone the relative ups and downs of this turbulent period. Accordingly, as the lifestyles of people today rely heavily on currency, it is commonly detected that their thoughts and behaviors tend to be determined by the currency economy to which they are subjected, the ethics of the relationships among humans broken, and the human relationships formed and maintained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o own currency.